

참깨 · 들깨 파종부터 수확까지

농진청, 내일 남원 운봉서 전 과정 기계화 기술 시연

농촌진흥청(청장 허태웅)은 14일 남원시 운봉읍에서 참깨·들깨 생산을 위한 전 과정 기계화 기술을 한자리에 서 선보인다.

지리산처럼영농조합법인 재배포장에서 진행되는 이날 연시회에서는 씨뿌림(파종), 모종심기(정식), 베기(예취), 낙알밀기(탈곡), 아물질 고르기(정선) 등 각각의 농작업에 활용할 수 있는 농기계 12기종을 현장에서 전시하고 각 농기계를 활용한 농작업을 시연한다.

참깨·들깨의 경우 흙갈이(경운), 땅

고르기(정지), 비닐덮기(파복), 방제 등은 기계화율이 높으나 씨뿌림(파종), 모종심기(정식), 베기(예취), 낙알밀기(탈곡), 아물질 고르기(정선) 작업은 기계화율이 낮아 농촌진흥청은 지속적인 기술 개발을 통해 전(全) 과정 기계화 작업 체계를 정립했다.

참깨·들깨 생산 시 전(全) 과정에



창덕궁 청의정서 베 베기 행사

김 효과가 이어질 수 있다

이날 농촌진흥청이 개발한 참깨·들깨 생산 기계화 적용품종 6종과 품종별 재배방식, 기계화 기술 등을 화관으로 소개한다. 재배인정성이 높고 기계를 이용한 재배 및 수확이 가능한 참깨 품종으로는 '건백', '밀양2호'가 대표적이고, 들깨의 경우 '들샘' 품종이 우수하다. 참깨·들깨 생산 전(全)

12일 서울 종로구 창덕궁 청의정에서 열린 베 베기 행사에서 농촌진흥청과 문화재청 관계자들이 베 수확을 하고 있다. <사진=농촌진흥청 제공>

과정 기계화로 전환하기 위해선는 기계화 작업에 적합한 농업환경을 갖추고 표준화된 재배방식에 맞춘 재배가 필요하다. 재배인정성이 높고 기계를 이용한 재배 및 수확이 가능한 참깨 품종으로는 '건백', '밀양2호'가 대표적이고, 들깨의 경우 '들샘' 품종이 우수하다. 참깨·들깨 생산 전(全)

를 강화하고, 밭농업 기계 연구 강화를 위한 인력·시설 등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지리산처럼영농조합법인 장정은 대표는 "씨뿌림 과정부터 수확에 이르기 까지 각 과정에 이용되는 기계를 통해 밭작물 생산을 위한 최적의 작업 조합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전북조달청, 식품클러스터 진흥원서 조달제도 설명회

전북지방조달청(청장 이주현)은 12일 익산시에 소재한 한국식품산업 클러스터진흥원(이사장 김영재)에서 클러스터 입주기업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 8월 18일에 조달청장 주관으로 개최된 전북지역 식품기업 및 춤형 간담회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조달정책 이해 증진을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에는 전북조달청 실무자들을 비롯해 한국식품산업 클러스터진흥원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관계자와 함께 클러스터 입주기업들을 대상으로 조달 초기화 사업체, 혁신사업체, 벤처나라, 디수공급자계약, 우수조달물품, G-PASS 등 조달장에서 시행 중인 다양한 조달제도에 대한 설명을 하고 질의에 답변했다.

이주현 전북조달청장은 "우리 먹거리가 최근 세계 곳곳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며 "식품산업 분야 기업들도 공공조달 시장에 진입해 지속 성장을 이뤄낼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 적극행정을 추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윤상 기자

새만금개발공사, 올해

수시채용 진행

새만금개발공사(사장 강팔문, 이하 공사)는 12일 '2021년도 수시채용'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채용규모는 총 4명으로 전문직 1명(변호사·차장급), 국기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대상(보훈) 신입직 1명, 경영관리분야의 경력이 있는 기간근로자 2명(육아휴직 대체자)을 채용한다.

일정은 ▲지원서 접수 10월 18일 ~29일 ▲서류전형 11월 3일 ▲필기 및 면접전형 11월 6일 ~13일까지 진행된다.

공사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인재 선발을 위해 고도화된 직무능력 중심의 블리어드 채용 규정을 준수하며 각 단계별 지원자의 직무적합성 및 발전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최종 합격자를 선발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공사 홈페이지(www.sda.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윤상 기자

바이어 31개사 참여 도내 제품 수출 상담

경진원, 아시아 권역 국가 대상 온라인 수출상담회… 총 103건 비즈니스 미팅 주선



전북도와 전북도경제통상진흥원은 아시아 권역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온라인 수출상담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등 다양한 분야의 도내 우수제품을 놓고 수출 상담을 진행했으며, 총 103건의 비즈니스 미팅(상당액 512만USD)을 주선했다.

경진원 이현웅 원장은 "이번 수출상담회는 전북도 아시아 수출 상위 4개국 대상 비대면(온라인) 상담으로 구성됐으며, 도내기업은 여전에 따라 기업 자체 사무실에서 진행하거나 올해 경진원에 새롭게 구축된 온라인 회상 상담장을 방문해 바이어와의 미팅을 진행했다.

코로나9 확산 이후 본격화된 온라인 수출상담회는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 별도의 해외시장조사를 하거나 바

이어 빌글 등에 들어가는 노력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특히

코로나9로 어려워진 해외 출장을 가지 않고도 세계 각지에서 온라인으로

방한하는 바이어와 한자리에서 상담을 할 수 있어 참여하는 도내기업이 많아지고 있다.

특히 이번 온라인 수출상담회는 중국, 베트남, 태국, 일본의 주요 바이어 31개사가 참여해 식품을 제외한 생활 소비재, 화장품, 기계, 건강·의료용품

지속적인 수출 확대를 위해 도내기업의 길잡이가 꽤 앞장서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재 경진원은 남은 하반기 기간에도 ▲전라북도 수출통합지원센터(1644-7155) 운영 ▲통상 전문가 컨설팅 지원 ▲통상위기 극복을 위한 안정화 지원 ▲FTA 원산지판리 지원 ▲수출 및 FTA 활용 교육 등 다양한 지원

사업을 통한 도내기업의 수출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김윤상 기자

외국인근로자 쿼터 대폭 확대 요구 높아

내년 수요조사 결과… 응답업체 대부분 "인력부족으로 어려워"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지난 9월 8일, 9일 양 일간 외국인근로자를 활용 중인 제조업체 792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중소기업계 인력 현황 및 2022년 외국인근로자 수요조사 결과를 12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코로나로 인한 외국인근로자 입국 지역·장기화에 따른 대책 마련을 위해 진행됐으며, 응답업체 대부분은 인력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92.1%) 주52시간 근무제 시행에 따라 외국인근로자 쿼터의 대폭 확대를 요구(65.0%)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는 모비일 조사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외국인근로자를 활용 중인 제조업체 792개사가 응답했다.

먼저 현장 생산인력에 대한 질문에

연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응답업체의 95.3%(755개사)는 2022년에도 추가적인 체류기간 연장조치를 희망하고 있다.

외국인근로자는 입국 전, 입국 당일, 격리기간 중, 격리 해제 직전 총 4회의 코로나검사와 2주간의 자가격리를 실시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백신 접종 후 입국하는 근로자의 비율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고용노동부와 중소기업중앙회 등 유관기관이 총 900실 규모의 외국인근로자 자가격리 시설을 확보해 월 1,800명의 근로자를 수용할 수 있어 8월말 기준 3,496명에 그치고 있는 입국인원은 충분한 확대 여력이 있다는 입장이다.

/김윤상 기자

감염병 의심되면 '1339'로

올해도 '나눔·동행'

하이트진로 챔피언십 참여 선수들

이동차량 지원 기부금 전달식

하이트진로와 '하이트진로 챔피언십' 출전 선수들의 나눔 동행이 올해도 이어진다.

하이트진로는 지난 10일 제21회 하이트진로 챔피언십(총상금 10억 원) 대회 종료 후 참여 선수들의 이동차량 지원사업에 대한 기부금 전달식을 진행했다. 하이트진로 챔피언십 대회는 매년 선수들의 상금 일부와 하이트진로의 1:1 매칭 그랜트 방식으로 기부금을 마련해 나눔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하이트진로와 선수들의 나눔활동은 2008년부터 13년째 이어오 있으며, 국내 최고 권위의 메이저 골프대회로서 또 다른 전통으로 자리매김했다.

어린이 환우, 저소득 가정 이동 등을 돋는 후원금을 시작으로 2015년부터는 장애인과 어르신들을 위한 이동차량 지원사업을 시작했다.

하이트진로 김인규 대표는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이웃들의 편의를 위해 매년 이동차량 지원과 함께 지역사회 밀착형 나눔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나눔활동에 동행하는 하이트진로 챔피언십 출전 선수들에게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도움이 필요한 주변 이웃들을 위한 다양한 후원활동을 이어가며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부하고 지역사회 이웃들을 도울 예정이다.

올해 이동차량 지원사업은 오는 10월 15일까지 이동차량이 필요한 사회복지기관 공모를 진행하고, 12월 중에 기증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연말 지원 차량까지 포함하면 7년간 총 44대의 차량을 지원하게 된다.

하이트진로 김인규 대표는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이웃들의 편의를 위해 매년 이동차량 지원과 함께 지역사회 밀착형 나눔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나눔활동에 동행하는 하이트진로 챔피언십 출전 선수들에게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도움이 필요한 주변 이웃들을 위한 다양한 후원활동을 이어가며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원주=이중복 기자



전북농협은 10월 정례조회에서 용진농협 이춘자 점장을 '전북농협 이달의 우수 농협'으로 선정하고 시상했다고 12일 밝혔다.

'로컬푸드 1번지 살림꾼'

용진농협 이춘자 점장

이달의 우수 농협인상 수상

전북농협(본부장 정재호)은 10월 정례조회에서 용진농협 이춘자 점장을 '전북농협 이달의 우수 농협'으로 선정하고 시상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춘자 점장은 1984년 농협에 입사한 이래 조합원의 복지와 실익증진에 힘써 왔다. 대한민국 최초의 로컬푸드 직매장을 총괄하는 점장으로 근무하면서 얼굴 있는 먹거리로 로컬푸드를 전국에 알리 지역 생산·소비리를 새로운 유통문화를 개척했다.

이를 통해 생산자에게는 안정적 판로를 통한 소득 증대에 기여했으며, 소비자에게는 신선하고 안전한 농산물을 저렴하게 제공하는 장을 마련하는 중주적인 역할을 했다.

한편 전북농협은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 묵묵히 헌신하는 숨은 인재를 발굴해 사업 활성화를 유도하고 직원의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매달 이달의 우수 농협인을 선발·시상하고 있다.

/김윤상 기자

전주고용센터-전주상의, 국민취업지원제도 간담회

고용노동부 전주고용복지센터(소장 황정호)와 전주상공회의소(회장 윤방섭)는 12일 전주상공회의소에서 3분기 국민취업지원제도 민관위탁 지역 협업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자체모집과 취업률 향상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이날 회의에는 전주고용센터 황정호 소장과 전주상의 이승복 사무처장을 비롯한 임직원들이 참석해 진지한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전주고용센터 황정호 소장은 "일선 현장에서 취업률 향상을 위해 수고하고 계시는 상담사분들의 애로사항도 들어보고 국민취업지원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의견도 청취하기 위해 이 자리에서 마련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전주상의 이승복 총장은 "민관위탁기관을 방문해 뜻깊은 자리에서 민관위탁자를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국민취업지원제도 활성화와 상담직원들의 고충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